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회의명 : 제50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회의일시 : 2020. 9. 16(수) 10:00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참석위원 : 한상혁 위 원 장
김 현 부위원장
김효재 상임위원
김창룡 상임위원
안형환 상임위원 (5인)

불참위원 : 없 음

제50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10시 00분 개회 】

1. 성원보고

- 한상혁 위원장
 - 의안·정책관리팀장, 성원 보고해 주십시오.
- 권희수 의안·정책관리팀장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국기에 대한 경례

- 권희수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 개회선언

- 한상혁 위원장
 - 2020년도 제50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전차 회의록 확인

- 한상혁 위원장
 - 제49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회의록과 속기록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하신 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한상혁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1건, <보고안건> 1건이 공개로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을 공개로 진행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 의결사항

가. 개인위치정보사업자 신규허가에 관한 건 (2020-50-234)

○ 한상혁 위원장

- 먼저 <의결안건 가> “개인위치정보사업자 신규허가에 관한 건”에 대하여 인터넷이용자정책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신승한 인터넷이용자정책과장

- 개인위치정보사업 신규허가에 관한 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입니다. ‘(주)에이아이매틱스, (주)크라블, (주)대호아이앤티, (주)와따, (주)블루앤, 기아자동차(주), (주)지오플랜, (주)온앤온정보시스템, 포티투닷(주)을 개인위치정보사업자로 허가하고 아래의 허가조건을 부과한다’입니다. 허가조건은 관계 법령 준수와 사업계획서 이행실적 제출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2020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계획」에 따라 제4차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신청법인에 대한 심사결과를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8월 3일부터 8월 10일까지 허가신청 접수를 받았습니다. 접수기간 동안 (주)트라이브언 등 총 13개 법인이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허가신청법인에 대한 주요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결격사유를 조회한 결과 결격사유는 없었습니다. 심사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심사위원회는 재무, 영업, 기술 각 분야별 전문가로 총 9인으로 구성해서 8월 27일부터 8월 28일까지 이틀 동안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심사위원 세부 현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기준은 「개인위치정보사업허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고시에 따라 위치정보사업 계획의 타당성 및 재무구조의 적정성(30점), 위치정보사업 관련 설비규모의 적정성 및 기술적 능력(30점), 위치정보 보호 관련 조치계획의 적정성(40점) 심사 등 총 100점 만점에 총점 70점 이상, 심사사항별 60점 이상 시 적격 판정을 받게 됩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주)에이아이매틱스 등 총 9개 법인은 총점 70점 이상, 심사사항별 60점 이상을 취득하여 적격으로 판정하였으며, (주)트라이브언 등 총 3개 법인은 심사사항별 점수는 60점 이상이나, 총점 70점에 미달하여 부적격으로, 소리시(주)는 심사사항별 60점, 총점 70점 모두 미달하여 부적격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허가신청법인별 세부 심사결과를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총 13개 신청법인 중 음영이 표시되지 않은 <1>번,

<4>번, <6>번, <14>번 법인이 부적격 판단을 받았습니다. 허가조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정보보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의결주문과 같이 허가조건을 부과하여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오늘 안건을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사업자에게 허가 심사결과를 통보하겠습니다. <붙임>으로는 허가신청법인 현황과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심사위원회 명단, 허가신청법인별 심사위원회 평가결과, 위치정보법 관련 규정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사항이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창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창룡 상임위원

- 이것이 올해 네 번째 위치정보사업 허가 건인데 혹시 이후에 한 차례 더 있을 예정입니까, 이것으로 올해는 끝입니까?

○ 신승한 인터넷이용자정책과장

- 올 연초 사업 신청의 예측성을 제고하기 위해 저희가 총 5번의 심사를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1월, 2월, 5월, 8월 이번이 네 번째가 되었고, 11월에 5차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 김창룡 상임위원

- 본 안건은 2020년도 제4차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의 건입니다. 오늘 의결로 9개 사업자가 신규로 허가를 받게 되면 올해 총 32개의 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사업 자격을 얻게 되는데, 올해 국내 위치정보 산업의 규모가 작년보다 15%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방통위에 활발하게 허가 신청을 하고 있는 만큼 사무처에서는 능력을 충분히 갖춘 사업자들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공정하고 엄격하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업자 중에서 ㈜트라이브언은 지난 제3차 심사에서, 또 에이케이이티공간정보(주)는 2차와 3차 심사에서 이미 부적격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들 사업자들이 연속해서 위치정보사업을 신청하지만 계속 부적격 판정을 받는다는 것은 아마 위치정보사업에 대한 의지는 있으나 안전한 위치정보 이용을 위해 필요한 조건들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사전 설명이나 사전 계도를 충분히 해 주셔서 미리 스스로 체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라고 저는 원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안형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안형환 상임위원

- 사무처 그리고 심사위원 분들 허가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에서 위치정보는 역학조사의 1등 공신으로서 감염병 예방에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위치정보는 이와 같은 재난, 보건 등의 공익적 분야뿐만 아니라 빅데이터와 같은 산업분야

에서도 활용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 상황에서 개인위치정보 노출로 인한 피해도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위치정보 활용에 대한 우려가 활용의 이익 못지않게 크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번 심사에서는 사무처와 심사위원들이 안전한 활용의 중요성을 고려해서 법적기준에 따라 엄정한 심사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무처의 의결주문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모쪼록 적격 판정을 받은 법인들은 관계 법령을 철저히 준수해서 산업분야에서 개인위치정보의 안전한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역시 원안 동의 의견이시지요?

○ **안형환 상임위원**

- 예.

○ **한상혁 위원장**

- 김효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효재 상임위원**

- 사무처와 심사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까 김창룡 위원님 말씀대로 두 군데가 연이어서 탈락을 했는데 보니까 주로 재무 건전성 문제 때문에 탈락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보완하도록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형환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위치정보는 매우 유용한 우리 산업의 한 기둥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만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또한 위치정보가 악용될 우려가 국민들 사이에 굉장히 커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번에 허가받은 업자들에게 그런 것이 악용되지 않도록 하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벌써 위치정보사업자가 2005년에 시작된 이후 246개 업자가 벌써 허가가 되었지요?

○ **신승한 인터넷이용자정책과장**

- 예. 허가사업자가 246개이고 신고사업자까지 합치면 1,893개 사업자가 있습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그것을 활용하는 업체가 1,893개가 되지요?

○ **신승한 인터넷이용자정책과장**

- 예.

○ **김효재 상임위원**

-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런 것들이 아마 지난번 20대 국회에서도 이것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진입장벽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한 번 검토해 볼만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김 현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 현 부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쪽 검토를 해 보면서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코로나19가 매우 심각하고 기업하는 분들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이번에 능력이 사업자 중 안 된 업체가 68점에서 69점사이에서 탈락한 사업자가 있습니다. 11월에 허가 심사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 사업자들에게 설명할 기회를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의 경우는 대면보고가 없이 서면보고로 진행했다고 하는데 다음번에 할 때는 대면보고를 통해 부족했던 내용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사업자가 설명할 기회를 충분히 갖고 다음번 기회에 반영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떨어진 업체 중 재정계획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이 제대로 안 됐다는 점 때문에 안타깝게 떨어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 다음에 소상히 설명을 듣고 안내해 주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코로나19 이전과 이후가 대한민국에서 사업하는 분들이 많이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제대로 반영되어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11월에 할 때는 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위원님들 모두 원안 동의 의견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하자면 지난번에 국회에서 문제가 되었던 랜덤채팅에 대해 잘 아시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업내용이 혹시라도 불법적이거나 아니면 위치정보를 가지고 문제가 있는 사업을 벌일 가능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보고 사후관리를 위해 조건에 이행실적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과정에서도 혹여 위치정보사업 자체가 그런 불법적인 사업에 이용되는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7. 보고사항

가.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19년도 이행실적 점검결과에 관한 사항

○ **한상혁 위원장**

- 다음은 <보고안건 가>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19년도 이행실적 점검결과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방송지원정책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차중호 방송지원정책과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사유입니다.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 사용사업자의 '19년도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실적 점검결과를 보고드리기 위함입니다. TV조선과 채널A의 경우에는 3월에 심사가 진행되어서 지난 2월 19일 사업자

제출자료를 기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주요 경과입니다. '17년 3월, 그리고 11월에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을 부가한 바 있습니다. 승인유효기간은 사업자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20년 1월, 4월까지 해서 이행실적 접수를 받았고, 6월, 7월에 걸쳐 현장실사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행실적 점검대상입니다. 종편PP 4개사의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 이행여부입니다. 조건 부가대상 사업자 및 세부내용에 따라 그 밑에 <표>에 보시는 것처럼 3개 분야 10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이행실적을 확인하였습니다. 10개 항목은 <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승인 조건 이행 점검결과입니다. 첫 번째, 4개사 공통사항인 방송프로그램 품격제고 계획입니다. 각 사별로 제출한 계획에 대한 점검내용이 되겠습니다. 품격제고 계획을 준수할 것이라는 조건에 대해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오보·막말·편파방송 법정제재 4건 이하라는 조건에 대해 채널A와 MBN이 각 1건씩 해서 2건이 법정제재를 받았고, 나머지 사업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행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검증기구 운영입니다. 조건내용은 방송심의 규정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투명한 검증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할 것이라는 내용이고, 검증기구를 구성해서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밑에 당구장 표시에 TV조선과 채널A 해당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 번째, 진행자·출연자 법정제재 시 출연정지하는 내용입니다. 자체 심의규정에 따라 진행하고 있는데 '19년도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진행자·출연자로 인한 법정제재 건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뉴스, 탐사보도, 시사논평, 토론·대담 장르 합산비율 준수 관련된 내용입니다. 프로그램 다양성 제고를 위해 편성 관련된 내용들을 다양화시키라는 조건인데 보도분야의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만 특별하게 조건을 부여했습니다. 사업자별로는 밑의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밑에 구체적인 <표>가 있는데 TV조선의 경우에는 일부 수정사항이 있습니다. '강적들'이라는 프로그램을 TV조선은 예능으로 분류해 왔는데 내용상 시사논평에 해당하여 이 부분은 수정하였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도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방비율 준수내용입니다. 프로그램 재방비율을 추가개선계획에서 제시한 비율 이내로 편성할 것이라는 MBN에 대한 조건입니다. 재방비율 계획을 40.8%로 제출했었는데 39.4%로 이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콘텐츠 투자금액 준수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업계획서 및 추가개선계획에서 제시한 연도별 콘텐츠 투자 금액 이상을 준수할 것이라는 조건이고, 밑의 <표>를 보시는 것처럼 준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이사항은 채널A의 경우 '17년도 미이행분이 19억원가량 있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시정명령 취소 소송이 제기되었고, 가처분 신청까지 같이 제기가 되어서 인용이 됨으로써 밑에 보시는 것처럼 '19년 12월 19일부터 '20년 5월 24일까지 시정명령 효력이 정지 되어 '20년 6월에 나머지 금액을 이행하면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행하지 못한 4억 8,000만원 정도의 금액은 '20년 콘텐츠 투자 금액에 포함해서 이행하도록 통보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콘텐츠 펀드 조성 관련된 TV조선에 대한 조건입니다. 콘텐츠 펀드 조성 계획을 준수할 것이라는 조건 내용이고, 이행여부는 TV조선이 출자한 법인 KC상생투자조합이라는 펀드 총 420억원 중 30억을 출자함으로써 이행을 하고, 콘텐츠 관련 펀드에 대해서도 총 출자한 내용을 제출해서 조성 계획을 이행 중인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아홉 번째, MBN의 외주제작 상생방안 및 방통위 기준 준수에 관한 내용입니다. 조건내용은 사업자가 스스로 제출한 외주제작사와의 상생방안을 반드시 준수하고, 외주제작 프로그램 제작비 산정 및 지급 등 방통위 기준을 준수할 것이라는 2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외주상생방안은 밑의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 있고, 선지급금 기준을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저작수익배분 가이드라인도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밑에 제작비 현실화라든가 저작권 권리 보장 부분도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방통위 기준과 관련해서는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에 대한 이행실적 점검결과를 7월에 별도로 보고드릴 바 있습니다. 그 내용 관련해서 밑에 <표>로 요약했습니다. 표준제작비 산정이나 상생 협의체 운영, 외주제작 계약서 사용 부분을 이행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 부분 가이드라인이 '19년 11월에 시행되어서 두 달치 점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MBN에 대한 경영전문성·독립성 확보 이행실적입니다. 조건내용은 사외이사 및 감사제도 개선 등 경영의 전문성, 독립성, 투명성 확보 방안을 수립하고 이행실적을 제출할 것이라는 조건입니다. MBN이 제출한 경영의 전문성 등 확보계획이 그 밑에 <표>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감사위원회 구성 관련된 내용과 두 번째 사외이사진 개편 내용입니다. 이행 여부 관련해서는 감사위원회 구성 부분은 이행한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사외이사진 개편 관련해서는 방송분야 경력이 없는 인사로 사외이사가 선임됨으로써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인사로 보기 어려워서 별도 처분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적었습니다. 이사회 현황은 밑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종편PP 재승인 권고사항 준수여부입니다. 미준수한 항목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권고사항 내용은 <표>에 보시는 것처럼 방송사업자별로 시청자 불만사유 세분화 및 재발방지부터 시작해서 일자리 확대, 국산방송장비 도입계획 등 <표>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내용은 '20년 1월에 보고 드렸던 가결산 자료였기 때문에 협찬 관련된 매출액 비중이 MBN의 경우에 22%에서 18.9%로 변경 제출되었다는 내용이 수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도PP의 재승인 권고사항 준수여부입니다. <표>에 보시는 2개 사업자에 대한 권고사항이 5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연합뉴스TV가 '연합뉴스로부터 독립성 확보' 관련된 확보 관련 보고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 조치방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치방향(안)입니다. TV조선과 채널A, YTN의 경우에 재승인 조건 이행실적 및 권고사항 점검결과, 이행을 한 것으로 나타나서 별도 조치는 하지 않도록 하고, 연합뉴스TV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합뉴스로부터의 독립성 확보 관련 권고사항을 미준수했습니다. 이것이 3월에 재승인 심사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위원회에서 심사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해 조건으로 상향하도록 의결한 바 있어서 내년도에 이 부분 관련해서는 이행 실적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JTBC와 MBN은 재승인 조건 이행실적 및 권고사항 점검결과, MBN의 경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이행한 부분이 있었고, 나머지 부분들은 하반기 재승인 심사위원회에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MBN에 대해서는 경영의 전문성·독립성·투명성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서 시정명령 사전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시정명령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접수를 9월에 진행하고, 시정명령은 10월 초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효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효재 상임위원

- MBN과 사외이사가 문제로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지요? 방송 전문성을 갖추고 그다음에 경영의 독립성을 제고할 수 있는 인사로 사외이사를 둔다, MBN 스스로 약속한 것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방통위가 다시 고치라고 했고, 그다음에 그것을 불복해서 MBN이 법정으로 가서 1심에서 우리가 졌지요?
- 차중호 방송지원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고법에 계류가 되어 있지요?
- 차중호 방송지원정책과장
 - 2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만약의 경우 MBN에 우리가 끝까지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것이 MBN의 재승인 심사에 보고가 되고 반영되는데 그것이 만약 대법원까지 가서 방통위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다고 판결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차중호 방송지원정책과장
 - 일단 저희가 시정명령 처분을 했지만 이 부분에 관해서는 소송이 제기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소송이 제기가 되면 시정명령 처분에 대한 감점처분은 하지 않고 있어서 재승인 감점 여부에는 특별한 영향은 없습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알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의안에 대한 의견도 말씀해 주십시오.
- 김효재 상임위원
 -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안형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안형환 상임위원
 - 사무처 고생했습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두 분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 김 현 부위원장

-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 김창룡 상임위원

- 김창룡 위원님 원안 동의이십니까?

○ 김창룡 상임위원

- 예.

○ 한상혁 위원장

- 네 분 모두 원안 동의 의견이셨고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접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8. 기 타

○ 한상혁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차기 회의는 9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9. 폐 회

○ 한상혁 위원장

- 이상으로 2020년 제50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0시 23분 폐회 】